산단 입주기업과 탄소중립 선도도시 '맞손'

전주시, 입주기업 10곳과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

전주시가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는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산업단지 입주기업들과 손을 맞잡았다.

시는 18일 시청 3층 회의실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임동욱 이노비즈협회 전북지회장을 비롯한 10여 명의 산업단지 입주기업 대표들이 참여한 가운데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중립 선도도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협약 주요 내용 △협약서 서명 △기념 촬영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시는 △루미컴(주) △모던메탈(유) △비티에스유한회사 △(유)송림지류산업 △㈜씨앤씨어패럴 △(유)영창철강 △㈜올릭스 △㈜유니온시티 △㈜천우에스엔씨 △㈜휴비스 등 산단 입주기업 10곳과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극대화하고,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의 탄소중립 선도도시 공모에 적극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산업단지의 지붕과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태양광 설치 등 탄소중립 사업 발굴 및 추진을 통해 지역사회의 탄소중립 실현과 기업의 에너지절약,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가기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시는 탄소중립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등 사업과 관련된 행정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협약에 참여한 산단 입주기업들은 △태양광 설치 △탄소중립사업 발굴 △탄소중립 실천 활동 이행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긴밀한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기업들과 함께 지역 특성에 맞는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사업을 발굴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의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위한 공모제안서'에 해당 내용을 담아 오는 7월 제출할 예정이다.

전주시가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는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산업단지 입주기업들과 손을 맞잡았다.

우범기 시장은 "협약을 통해 전주가 명실상부한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기업에서도 적극적인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주시는 에너지 자립률 향상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태양광발전소 건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등 지역 주도적 탄소중립 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다. /김옥기 기자

전주만의 연중 축제 · 문화 '풍성'

4월 풍패지관 야간연회 시작으로 국제영화제 · 페스타 등 다채

전주시는 4월 야간관광 콘텐츠인 '풍패지관 야간연회'를 시작으로 전주국제영화제와 전주단오, 조선팝공연, 전주가맥축제, 전주시 대표축제 '전주페스타 2024' 등 연중 다양한 축제와 문화행사가 펼쳐진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인 '풍패지관 야간연회'는 조선시대 사신들을 맞이하는 장소인 풍패지관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각색한 퓨전 공연으로, 지난 6일부터 오는 27일까지 매주 토요일 밤 시민과 관광객을 찾아온다.

이어 오는 5월부터는 '전주국제영화제'가 '우리는 늘 선을 넘지'라는 슬로건 아래 5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열흘간 고사동 영화의거리를 비롯한 전주시 일원에서 개최된다.

또한 오는 5월 4일부터 6월 9일까지는 전주한옥마을과 덕진공원 등에서 버스킹과 마술, 비보잉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 프로그램이 예정 되어있다.

우리나라 최고의 국악경연대회인 '제50회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는 오는 5월 18일 전야제 공연을 시작으로 6월 3일까지 국립무형유산원을 비롯해 전주시 일원에서 진행된다.

여기에 조선팝 공연도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와 연계해 오는 5월 3일부터 5일까지 전라감영과 영화의거리 일대에서 특별공연을 선보인다.

전주의 대표 문화유산축제인 '전주문화유산야행'은 오는 5월과 10월, 2회에 걸쳐 전라감영과 경기전 등 전주한옥마을 일원에서 펼쳐진다.

끝으로 오는 6월에는 전주단오가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덕진공원 일원에서 펼쳐진다. 올해 전주단오에서는 풍년기원제를 시작으로 씨름대회, 물맞이 행사 등 전통 행사, 거리 예술공연 및 체험행사 등을 함께 즐길 수 있다.

가장 한국적인 문화와 전주의 맛과 멋을 즐길 수 있는 축제와 문화행사는 올 하반기에도 이어진다.

8월에는 '전주가맥축제'와 '전주얼티밋페스티벌(JUMF)'이 열리고, 오는 10월에는 전주 대표축제인 '전주페스타 2024'와 '전주국제한지산업대전', '전주예술난장', '한옥마을 문화시설 특화축제' 등에 예정돼 있다.

노은영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전주는 문화유산을 비롯해 전주만의 관광콘텐츠가 풍부한 곳으로, 전주를 찾는 관광객과 시민을 위한 다양한 축제를 개최해 세계 속의 전주, 머무름이 있는 체류형 관광도시 전주를 조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쾌적하고 안전한 '전주국제영화제' 만든다

5월 1~10일 개최… 성공 개최 위해 분야별 막바지 점검 분주

전주시는 오는 5월 1일부터 10일까지 고사동 영화의거리 등 전주시 일원에서 펼쳐지는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안전·교통·청소·미관 등 각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영화제를 찾는 시민과 관광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행사 공간 조성을 위해 전주시 및 전북경찰청 등 11개 기관 20여개 부서 40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집중 안전 점검 △불법주정차 단속 △영화의 거리 정비 △청소대책 △불법광고물 정비 △숙박업소 지도·점검 등을 추진한다.

또한 올해 전주국제영화제에는 지난 24년간 영화제의 숨은 일꾼이자 든든한 동반자였던 자원활동가(지프지기)가 역대 최대 규모인 약 500여 명이 활동한다.

이와 관련 올해로 제25회를 맞이한 '전주국제영화제'는 '우리는 늘 선을 넘지'라는 슬로건 아래 5월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간 고사동 영화의거리를 비롯한 전주시 일원에서 진행된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개막식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펼쳐지며, 폐막식은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에서 개최된다.

특히 올해 전주국제영화제는 한국영화 공모에 1513편, 국제경쟁부문 공모에 81개국 747편이 출품돼 각 부문 역대 최다 출품 수를 기록하는 등 개최 전부터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으며, 열흘간 43개국 232편의 다양한 영화가 상영될 예정이다.

여기에 올해 영화제에서는 △'픽사(Pixar) in 전주(가제)' △'다시 보다: 25+50' 특별전 △'전주씨네투어X마중' △제10회를 맞이한 '100 Films 100 Posters'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특별전이 마련돼 영화제의 정체성 유지와 대중성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 달성을 꾀하게 된다.

전주 곳곳에서 영화와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야외 상영의 경우 △전주대학교 대운동장 △전주월드컵경기장 광장 △혁신도시 엽순근린공원 △에코시티 세병공원 △남부시장 문화공판장 작당 등에서 진행되고, 지역 내 특색있는 공간에서 즐길 수 있는 골목상영도 영화의 거리 일대와 풍남문 등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대폭 확대

고물가로 인한 가계경제의 부담이 가중된 가운데 전주시가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해온 전주지역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혜택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시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시민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물가 안정에 이바지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현재 전주지역 '착한가격업소'는 △외식업 35곳 △미용업 6곳 △세탁소 2곳 등 총 43곳이 지정돼 있다.

먼저 시는 착한가격업소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 품목을 확대키로 했다. 기존 현물 위주의 지원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이달 중 업소별 수요조사를 거쳐 올 상반기 중 업소별 맞춤형 인센티브 품목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이 착한가격업소 이용 시 전주사랑상품권 3% 추가 캐시백 지급 혜택을 제공하고, 배달료 지원사업도 추가 시행키로 했다.

이 가운데 추가 캐시백 지급 혜택의 경우 확보한 국비 7500만 원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되며, 착한가격업소에서 전주사랑상품권을 이용해 결제한 고객들은 3% 추가 캐시백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고객이 공공·민간 배달앱을 통해 착한가격업소에서 주문할 경우에는 2000원의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아울러 시는 현재 43곳인 착한가격업소를 올해 53곳 이상으로 10곳 이상 늘린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5월 중 착한가격업소 추가지정 모집공고를 통해 신청·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한편 전주지역 착한가격업소 정보는 행정안전부 누리집이나 전주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설공단, 에코시티 12 공영주차장 신규 운영

전주 '에코시티' 시민의 주차 편의 향상을 위해 전주시설공단(이사장 구대식)이 신규 공영주차장을 운영한다.

18일 공단에 따르면 덕진구 송천동2가 1327-3에 위치한 '에코시티 12 공영주차장'이 정식 운영을 시작했다.

에코시티 12 주차장은 1645㎡ 면적에 주차면 52면 규모로 조성됐다. 무인 주차장으로 24시간 운영된다.

주차 요금은 기본 30분에 600원이며, 이후 매 15분마다 300원씩 추가된다. 1일(24시간) 주차 요금은 6000원이다.

김형수 주차운영부장은 "시민 편의를 증진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와 안전한 교통 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 새활용센터 운영 현황 점검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이남숙 의원)는 지난 17일 전주시새활용센터 다시봄에 방문해 체험 활동을 참여하는 등 운영 현황을 살폈다.

이남숙 위원장 등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센터에서 새활용 체험프로그램 중 하나인 폐가구나 폐목재를 활용한 소품 만들기 체험에 직접 참여해 프로그램 진행 과정을 살피는 등 전반적인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이 위원장은 "버려진 생활용품 등을 재활용해 다양한 소품을 만들어 녹색환경을 조성하는 전주시새활용센터가 더욱 활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북의 역사 · 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렸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정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견인차였다.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